

오늘의 유머

▲아내의 속마음

임종이 가까워진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유언했다. "여보, 당신은 참 좋은 분이세요."

▲머리 좋은 죄수

외부의 모든 편지를 검열 하는 한 교도소에 서

죄수가 아내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당신이 없으니 너무 힘들어요. 발에 감자를 심고 싶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시험시간에 I

한 교수가 기말 시험에 OX 퀴즈를 냈다. 시험 감독을 하던 교수 눈에 한 학생이 동전을 굴리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자네 동전을 굴려서 답을 맞히려려고 하는 건가?" 그러자 학생이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는 중입니다."

▲시험시간에 II

조교가 기말시험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돌린 후 초조한 표정으로 학생들에게 말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은 문제가 아니라 해답이 적혀있는 답안지를 받았습니."

▲여자의 질문

어떤 여자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하느님은 왜 남자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러자 하느님이 조용히 대답했다.

남자를 만들 때 여기를 크게 해 달라, 저기는 어떻게 해주라 잔소리가 심했었는데 그걸 어찌 다 들어 주겠느냐?"

▲어떤 아내

남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공동묘지에서 한 여자가 부채를 들고 묘지에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본 남자가 호기심이 생겨 여자에게 가서 물었다.

시골벽적 e-스타



추석 때 듣기 싫은 말 베스트 3

한가위 대명절이 지나갔다. 예년보다 짧은 연휴기간이 아쉬운 이들도 있지만 오히려 금세 지나간 명절이 반가운 이들도 있다. 고 3이어서 취업 준비생이어서 일가친척들 눈길에 예사롭지 않은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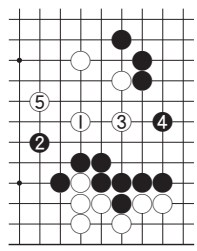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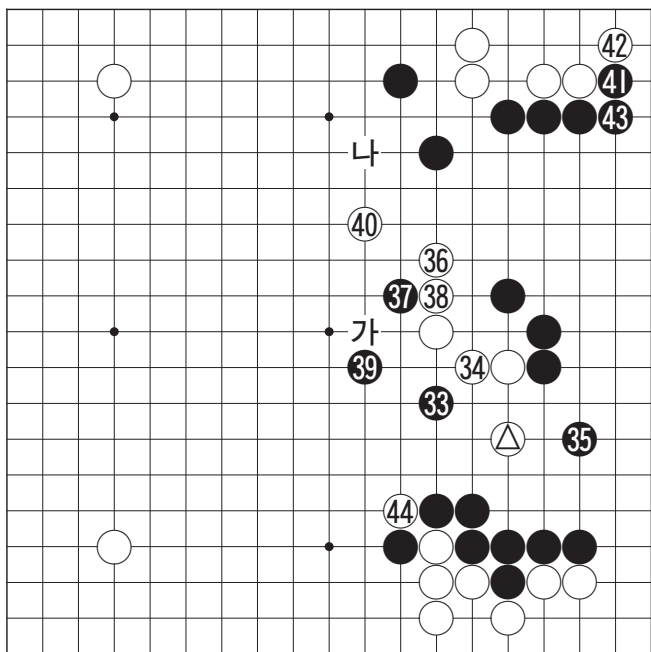
은...." 그래도 관심이라도 있으셔서 하는 소리라고 해도 재수하고 있는 조카에게 "대확은 어디로 갔더라~"하며 편칭 부리는 어르신들 얄팍다.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피할 수 없는 공포스런 말, "취업은 언제 하나?"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 지방대별

주도권을 넘겨준 대실착

개인전 결승전 3보(33~44)

白 박광주 5단 (포스코) 黑 김영수 5단 (전남교사회)



참고도

장 응수가 궁해졌다.

백 34로는 '참고도'의 1로 두는 것이 요소로 흑 2로 지키면 그때 3으로 뛰어야 했다.

이 모양은 5로 중앙이 안정돼 백 승공의 그림이다.

백 34로 흰 수가 기분에 치우친 욕심이 있다. 이 수는 흑이 35로 받아주기를 기대한 수인데 공격능의 김영수 5단이 틈을 놓치지 않고 33으로 급수를 때려오자 당

급수를 얻어맞고 박광주 5단의 안색이 붉게 물들고 있다. 한 수없이 백 34로 몽크렸으나 공배를 두고 있는 모습이라 한방 아프게 얻어 맞은 형상이다.

백 36도 '가'로 두어 중앙으로 뛰어어나는 것이 정수. 초반부터 박광주 5단의 행보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이러자 흑 37로 들어다 보고 39로 둔 것이 활력이 넘치는 행마다.

〈오규철 9단·본보 비독해설위원〉

대한주변중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8일(음 8월 19일 辛酉)

Table of daily fortune telling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with corresponding animal icons and text.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photo of a woman and child.

Table with 4 columns for language learning: English (John gets on my nerves), Japanese (風邪(かぜ)に引(ひ)きやすいんですね), Chinese (公園的人多吗?), and Korean (戒盈杯(계영배)).